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비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스님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31호 현대불교  
2007년 6월 6일(음력 4월 21일) 수요일 / 불기 2551년  
법공양 페이지

21

# 우리 마음 밖에서는 내 자성불을 찾을 수가 없어!

어저께도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  
다만 우리 인간은 물질을 세우고, 내 몸뚱이라고  
세우고, 말을 세우고, 이들을 세우고 이러기 때문  
에 자기 참마음의 전달이 되지 않는 겁니다. 참마  
음의 전달이 속속히 될 수만 있다면 참으로 이러  
게 좋은 법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좋은 법이 없었던 '어쩌면 이렇게 좋은  
법을 모를까?' 하는 안타까움에서 어저께 잠깐 일  
체 만물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봤습니다. 모든 무성  
물이나 생물이거나 또는 날짐승들이나 낮은 동물들  
은 다, 일 년에 지나가는 모든 것을 알고 생활을 하  
고, 또는 어떠한 무리가 닥쳐오는 것을 알고 지내  
고 있고, 기상이 나쁘다는 걸 알고 있고, 갖가지로  
모두 알고 지내고 있는데 우리는 인간으로서 자유  
스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대로 제대로  
전달을 못하는 원인은, 바로 몸뚱이와 말과 물질에  
대한 욕심과 착을 때버리지 못해서 일이 벌어진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때버리라고 해서 쉽게 때버리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밖에서는 절대로 내 자성불을  
찾을 수가 없으며, 자성불을 찾지 못한다면 일체  
만물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전  
달을 못하고 또 일체 만물의 마음을 전달받지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사는 데 얼마나 복잡다  
단하고 괴롭습니까? 한 가정에서도 마음이 맞지  
않으면 자유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전체 만물과 더  
불어 같이 응응하고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데 얼  
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때에 따라서 내 생각의 범위 내에서 내  
생각만 해서 남 생각을 안 하고 남의 속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면서 내 생각대로 말을 해버리고 만니  
다. 또 내 생각의 차원에 따라서 옳다고 주장하고,  
또 내가 아니면 이런 건 못한다고 하는 자만심, 이  
런 것 때문에 그러지는 겁니다. 모든 게, 별래 하나  
도 허투루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운문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어  
느 날 대중을 모아놓고 "이 세상에 모든 게 활가활  
부하는데" 다시 말하면 "평화롭게" 하는 소립니다.  
그러니깐 복잡다단하다는 얘기라고도 볼 수 있겠  
죠. 종이 울리니 어쩌서 너희들은 철조가사를 입  
시키고 하셨답니다. 종소리를 듣고 어찌 철조가사를  
입느냐는, 몇 때문에 그 철조가사를 입느냐 이런  
말이죠. 거기에는 참 심중 깊은 의미가 들어 있다  
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대중들은 제각기 달리  
들은 겁니다. 똑같이 들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심중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한마디 간단하  
게 하셨건만 그건 말씀이 아닌 말씀이었지요.

가사에는 철조가사, 구조가사, 오조가사가 있는  
데 최초로 가사를 두들 때 어떻게 생각을 하나  
하면 한 쪽이면 한 쪽, 두 쪽이면 두 쪽, 한 오락지  
면 한 오락지 이렇게 시주를 한 거니까, 오조는 조  
그만 오락지를 모아서 한 거고, 칠 쪽을 얻으면 칠  
조로 하고 또 구 쪽을 얻으면 구조로 하고 이렇게  
한 걸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심중  
깊이 들었겠죠. 우리가 그 뜻을 한번 음미해 본  
다면 대답을 가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대로 생각하십시오.

예전에 여러분이 질문을 하고 말을 했습니다. 나  
는 또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말입니  
다. 그러면 듣는 마음이나 대답하는 마음이나, 마  
음과 마음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말로 전달을 한

놓는 등대라 한다면 네 등잔은 마음이나. 그런데  
마음으로 말하면 거기에 또 기쁨도 있어야 하고 심  
지도 있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심지도 있고 다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성냄으로 불을 당기지 못하는 사  
람은, 나무를 한 집 해 줬자야 한 번 태워버리면  
그뿐일 것을, 그렇게 마음이 응응해서야 나무 한 집  
한 본의가 어디 있었느냐 하면서 작대기로 정각이  
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깐 나무한테 그냥 데굴  
데굴 굴러서 남떠러져서 떨어지지 거기서 '아차'  
하고선 그 도리를 깨닫지 않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마디 들으면 가  
정에서나 도량에서나 자기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하  
고, 자기 차원에서 생각을 하지 남의 차원에서는

만 공경장이 폐업을 하고 파업을 일으킨다면 몸 전  
체가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도 복  
잡다단하고 모든 생명들이 내 몸 안에 형성이 돼서  
한 사람의 선장으로서 마음을 먹게 돼 있으니 얼마  
나 복잡합니까? 그런데다가 가정도 그리 쉬운 건 아  
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회도 복잡다단합  
니다. 세계는 물론이거니와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과 마음을 전달한다, 마음과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뜻은 우리 마음을 의해  
서 모든 것이 결부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죠. 여섯  
가지가 우리 몸 안에 있는 거를 비유를 한다면 등,  
등대, 기쁨, 심지, 성냄, 사람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가 다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주  
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수성찬을 차려놓고 '너  
는 그것을 몇 때문에 먹느냐?' 하는 거와 똑같습니  
다. '지금 철조를 몇 때문에 입느냐?' 종이 울리는  
소리 듣고 너는 몇 때문에 철조를 입느냐?' 이런  
것도 '밥을 다 해놓고 먹을 걸 차려놓고 너는 몇 때  
문에 그걸 먹느냐?' 이런 거와 똑같은 문제죠. 너  
는 몇 때문에 사느냐? 이런 것도 똑같은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 하나로 인해서, 이 말은  
참 심숙하고하고 들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  
분의 마음이 체가 없으면서 듣고 있고, 나도 체가 없  
는 마음이 지금 움직여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  
다. 그 들은 마음과 하는 마음이 들어 아닌 것입  
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 밖에서는 찾을 수가 없으니 마음 안에서 일  
체 만법의 활용을, 자기의 환경에 따라서 자기 주어  
진 데에 따라서, 자기 차원에 따라서 말입니다. 지  
금은 예전과 같이 등잔과 등대가 있는 게 아니고 코  
드만 가지는 세상이니까, 지금 이렇게 발전이  
됐다는 얘깁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여섯 가지 방편  
을 썼지만 지금은 여섯 가지가 한 가지가 될 수  
있고 한 가지가 여섯 가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  
섯 가지만 여섯 가지라고 볼 수 없는 거죠. 한 생각  
에, 코드 하나에 끼워진 뺨다 할 수만 있다면 안  
에서 끼고 바깥에서 끼고 할 수 있다면, 안에서 끼면  
바깥에서 벌써 환하게 비치는 거 아닙니까? 가설은  
본래 돼 있는 거고, 우리 인간이 살아 있다 하면 별  
써 이 세상 가설은 다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대로 마음과 마음을 전달해서 즉, 끝  
없는 예부터 지금 여기 나오기까지, 마음을 전달  
해서 이날까지 나온 것이 마음 전달해서 나오  
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풀어지지  
않는 예부터' 하는 소리는 억겁을 거슬러 올라가  
서 얘깁니다. 그때서부터 마음과 마음을 전달하고 마  
음을 개발하고 마음의 개발이 필요해서 진화가 되

고, 진화가 필요해서 몸이 바뀌고 바뀌짐으로써  
 옮겨놓고, 옮겨놓음으로써 우리는 예까지 온 것인  
데, 지금 옮겨진 몸만 몸인 줄 알고 있죠. 어저께 굶  
배인 줄 모르고 오늘 매미인 줄만 아는 그러한 속  
 좁은 마음이죠. 과거심도 현재심도 미래심도 한데  
 뭉쳐서, 일심(一心)도 고정된 게 없다는 걸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생수 맛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전자에는 전자대로 끊어지지 않고 예부터  
 온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는 이 마음을 '예부터'  
 했던 말입니다. 옛 자리나 지금 자리나 똑같습니  
 다.

우리는 인간이 왜가지고 일체 만물의 선장인 부  
 처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왜 그렇게 폭이 넓지 못  
 하고, 팔이 넓지 못하고 마음이 넓지 못해서 우주  
 의 근본과 일체 만물의 근본을 한마음에 넣고 굴  
 리지 못합니까? 물론 새들도 재잘거리고 입으로만  
 말을 하지, 도대체 마음으로 말을 하지 않아요.  
 그 말소리를 들을 수는 있죠. 그러나 듣는 것도 도  
 가 아니라고 한 것은, 다섯 가지 오신통(五神通)이  
 도가 아니라고 한 것은, 듣고 보고 해도 내가 이것  
 을 옮겨놓을 줄 모르고 자유자재 못한다면 그것은  
 도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보기만 하면 될 하고  
 들기만 하면 될 합니까?

만약에 백 명이든 십만 명이든 딱 마주쳤을 때,  
 즉 말하자면 내 앞에 딱 다가왔을 때는 내가 급하  
 니가 그것을 옮겨놓을 수밖에 없는 거, 즉 말하  
 자면 어떠한 폭풍이 왔을 때 '폭풍을 이쪽으로 조  
 금 옮겨놓고 분배를 하면 여기도 무너지지 않고,  
 저기도 무너지지 않을 것을...' 할 때, 이것은 자기  
 자성의 근본적인 자비요, 바로 자비의 원력입니다.  
 무너지면 살려고 하기 이전에 내 몸뚱이도 그 몸  
 뚱이도 모두가 다 중생의 몸입니다. 그렇다만 내  
 한마음이 그렇게 넓은 자비 원력이 있다면 폭풍이  
 올 것을 옮겨놓지 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면 수백  
 명에 달하는 인명이 죽지 않게 할 수도 있지 않  
 냐 이런 것만 합니까?

그러나 또 한편은 무너지는 걸 무너지지 않게 하  
 는 것만이 도가 아니겠느냐? 그게 옳이 아니  
겠느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바로 잘못됐다 이  
 겁니다. 잘못을 생각하고 있다 이겁입니다. 그런 왜?  
 가는 것 잡지 말고 오는 것 막지 말라 그랬습니  
 다. 가정에서 살면서도 내 앞에 닥치는 거 남 일 보듯  
 그냥 돌아갈 겁니까? 다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스스로 나는 겁니다. '야, 이거 참 지켜거  
 가 없는데.' 이런 생각은 스스로 나는 거 아닙니  
 까? 누가 하라 해서 하고 말라 해서 마는 게 아닙니

22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전달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볼 때에 마음 밖에서는 부처를 찾을 수가 없거나  
와 마음 밖에서 나를 어떻게 찾으며, 마음 밖에서  
어떻게 부처님의 배짱을 알 수 있겠느냐는 얘깁니  
다. 수천수만의 조사들의 그 배짱을 어떻게 알겠  
느냐? 그 말씀 한마디, 의미 깊은 말씀 한마디를 내  
려놓으면 그것을 모른다면 내 소견만 소견이라고 하  
지, 남의 소견을 모르니까 그거는 바로 귀머거리와  
똑같은 얘깁니다.

예전에 내가 이런 말을 했죠? 어느 스님이 탁발을  
하러 가서, 보리쌀 따를 한 그릇을, 가난한 집에서  
바리때에 담아주는 거를 먹고서 너무 가워서 나  
무 한 집을 해다 주러 갔노라고요. 나무 한 집을 잔  
뜩 해가지고 내려오니가 온사 즉, 산 부처가 있다 하  
는 소리가 '이놈아, 어쩌면 그렇게 좁으냐?' 이거죠.  
너는 어찌 그렇게 좁으냐? 너의 몸뚱이를 등을 받쳐

좁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벌  
어지는 거죠. 내가 좀 더 그 도리를 이해하고 그  
쪽 방면으로 한번 서보는, 잘못됐든지 잘못됐지 내  
가 서보는 그런 마음이 돼야 하고 그 마음이 됐다  
면 남들과 서로 마음과 마음이 전달을 하게 되는  
자비심이 생겨서 가정도 조화를 이루고 또 생활  
속에서 조화를 이루죠. 인간이 살아가는 데, 부  
부가 만나서 사는 데도 간단하게 생각이 되자면  
사람 사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가  
다 보면 그것이 너무도 복잡하고 다단합니다.

그러고도 생활에 의해서, 자기 인연에 의해서 천  
차만별로 자기한테 주어진 대로 생활을 하게 돼 있  
죠. 장사꾼은 장사를 하고 정치인이면 정치를 하고  
말입니다. 뭐든지,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렇게 복잡다단하게, 내 몸도 복잡다단하게 생긴 겁니  
다. 그래서 한쪽이 폐하가 되면 또 한쪽이, 즉 말하자



부처님의 팔만 사천 법문 일체가 종교 이상의  
진리요, 과학이요, 의학이고, 의술이다.



**불법佛法은 의학이다**  
송담 滋澗 지음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조실이시며  
동국대학교 불교 역경원장이시고 (生佛)이신  
월운대선사께서 책내용 모두가 (인간들에게)  
구구절절 약이 되는 감로수와 같다고(찬탄 하시었다)

송담 스님이 온갖 질병과 괴질로 고통 받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사업이 부도가 나 폐가망신하여  
가정이 파괴되는 과정을 보면서 부처님의 법문으로 환자와 가정과 사업을 일으켜 주었다.  
우리 인간들에게 지수화풍地水火風의 4대에서 각각 101가지씩 404가지의 병이 발병된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많은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였던 경험담이다.

문의 - 법파사 | 02)2612-3358

전화 : 02)335-7883 팩스 : 02)335-7858 전자우편 : babosae@kornet.net

## 經典專門講座

한국평생대학 경전학부에서는 불교인구의 저변 확대와  
자질 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경전 전문강좌를  
열고 있으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 아 래
- 모집시기 : 6월 · 12월 (지방 교육원에서 접수)
  - 수강자격 : 경전 가르침에 따라 수행 하실 분
  - 강좌과목 : ●법화경 (불교 최고의 경전)  
●황제내경 (중국 고대의학 원전)  
●수행자유법 (심신수행, 생활의학)
  - 강좌일시 :  
대 구 ▷ ① 화요일 오후 2시 - 4시 (평일반)  
② 토요일 오후 2시 - 4시 (주말반)  
부 산 ▷ ① 목요일 오후 2시 - 4시 (오후반)  
② 목요일 저녁 7시 - 9시 (저녁반)
  - 강좌장소 :  
대 구 ▷ 동대구역 옆 동대구 빌딩 3층  
부 산 ▷ 부산역 옆 삼진빌딩 2층
  - 기타특전 :  
●수학중서 수여 (1년 단위)  
●부부 함께 등록시 한명은 회비 면제  
●군, 경, 소방, 교정직 근무자 회비 50% 할인
  - 문의전화 : 053)952-8711 / 017-501-8711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4동 276-25번지

교육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韓國平生大學**

## 바로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지명보살 가피업은 신비  
의 달마도와와 특별한 인  
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  
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형성하고 정갈한 공간에  
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  
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면 소망하  
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게 됩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  
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  
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  
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  
도가 있으니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창